

광주전남언론학회에 김기태 호남대 교수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최근 제 20대 광주전남언론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비평학회 부회장, 광주전남신문인문사민연합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광주·전남언론학회는 언론·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지역 언론의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건축단체연, 8일 '도시건축 심포지엄'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안길전·사진)가 주관하는 2016 도시건축 심포지엄이 '지역 건축유산, 관광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8일 오후 2시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박홍근 건축사(주)포유건축사무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장소 마케팅의 눈으로 본 광주'(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지역자산으로서의 건축물 활용 방안'(최만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산의 건축문화해설사 양성과 운영사례'(신병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안길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건축유산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모색과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관광자원 개발과 이를 통한 선도 사례 발굴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동강대 'DK-취업 디딤돌 프로그램' 개최

동강대(총장 김동욱)는 최근 화순금호리조트에서 'DK-취업 디딤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행사는 보건행정학부, 소방안전관리과, 소평물디자인창업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전기전자과, 토지정보관리과, 호텔관광과 등 9개 특성학과 소속 학생 162명이 참가했다.

동강대는 학과별로 유망 취업처를 분석, 병원, 호텔, 기업, 소방서 등 17개 산업체 담당자를 초청했다.

'DK-취업 디딤돌'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산업체는 구인난을 해결하고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자'는 의도로 마련된 프로젝트로, 지난해 2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KT&G 전남본부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KT&G 전남본부(본부장 김웅덕)는 최근 광주김치타운에서 김중식 광주시 경제부시장, 김웅덕 본부장, 대학생 봉사자 150여명, KT&G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을 개최했다. <KT&G 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나중천(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임인순씨 차남 영수군 유영재·임영임씨 막내 우경양=10일(토)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동구 무등파크호텔 4층 파크마리아주, 문의 010-3605-0850.

▲박태욱·손미자씨 장남 진우군 이민창(합평 나산파출소·정해순씨 장녀 광량양=11일(일) 낮 12시 광주시 서구 마곡동 데일리웨딩컨벤션 3층 비스타홀.

▲강원영(세계녹색기후기구 동북아 글로벌본부 수석대표)·조금영씨 장남 지완(세계녹색기후기구 동북아 글로벌 방송본부 행정위원)·박영희·정삼성씨 사녀 효현양=11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컨벤션 2층 엘투체홀.

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6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의 밤=6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알펜시아웨딩컨벤션(구 갤럭시아워딩홀) 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음=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방방물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빛 봉사단=뜰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원은 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이발기술 무료 전수=북구 우산동 덕

성이발관 062-524-0680.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가능항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של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최규렬씨 별세 최영하·수함·준영·효신·효상·효춘·효은씨 부친상 박수원·정영자씨 시부상 문요한·김성일씨 빙부상=발인 6일(화)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부음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201호故노관승 남(남/56세)</p> <p>子 : 노은석 女 : 노은진 未亡人 : 윤혜경</p> <p>발 인 : 12월 7일 장 지 : 영락공원</p>	<p>301호故박종남 남(남/95세)</p> <p>子/子婦 : 박기수/김경주, 장수/박영순, 신기/문숙정 친기/문혜경 女/婿 : 박정숙/손안식, 장남/이성재, 정희/이수환, 영희</p> <p>발 인 : 12월 7일 장 지 : 순창 통산선영</p>
<p>401호故임정순 남(여/96세)</p> <p>子/子婦 : 이인관/김영자, 승관/서정례, 기주/김미숙, 정인 女/婿 : 이춘자, 장자/김용현, 집자/오승택, 경례/정갑기</p> <p>발 인 : 12월 7일 장 지 : 고창 무정면</p>	<p>402호故김득환 남(남/55세)</p> <p>子 : 김재민 未亡人 : 주윤자</p> <p>발 인 : 12월 6일 장 지 : 영락공원</p>

孝 金호장례식장
대표이사 구재길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도움 필요한 곳에서 작은 나눔 이어가고 싶어”

'2016 자원봉사 대상' 국민훈장 석류장 받은 강신자 씨

“제가 한 일에 비해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행정자치부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5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강신자(76)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작은도서관 명예관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에 헌신한 개인, 기업, 지자체 등 모두 305명이 훈장과 포상, 표창을 받았다. 최고영예인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는 강 명예관장을 포함해 대전시 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 정희경(90)씨와 경북 포항시 자원봉사동아리연합회 황국성(58) 회장 등 3명이다.

강씨는 자원봉사와 기부로 마을단위 공동체를 형성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지난 1993년 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0년간 지역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가정 3000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해왔고, 광

동림동 작은도서관 운영 기여

25년간 무료 급식봉사·기부

마을공동체 운동 적극 참여

주애육원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김장김치 담그기, 무료급식 봉사 등에 꾸준히 참여했다.

강씨는 “집 근처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었다”며 “가까운 곳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연스레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강씨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동 주민자치위원과 새마을부녀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마을단위 주민자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림동 작은도서관이다. 광주시 북구의 자치도서관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센터 3층에 마련됐는데,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강씨와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



이다. 강씨는 2000년 동림동 작은도서관 설치 운동을 벌이고 2006년까지 도서관운동운을 전개

해 지금까지 3만여 권, 3억 원 상당의 책을 도서관을 비치할 수 있게 했다.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작은 도서관 운동을 추진,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도서관장을 맡은 그는 마을주민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0년간 2만400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작은 도서관은 평일 밤 10시와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강신자 명예관장은 “지금은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며 “젊은이들에게 도서관을 맡기고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작은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임형순(64) 소장과 기업부문 대창운수주식회사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광주·전남 제남대응봉사회 홍준길(60) 회장과 안송자(72)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 김정운(48)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 2제강공장 부총괄이 받았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중 거니에신산 등반 도전 정신과 좌절 담은 에세이 출간

영·호남 학생산악연맹 원정대

'함께 했던 시간들...' 펴내

“이번 원정이 내 산악생활의 정점이 아니라 첫번째 계단이라 생각해요. 다들 또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거죠.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

부경대학교 산악부 회장 이재훈씨는 에세이집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에서 지난 등반의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 3개지역 학생산악연맹 대원들의 고산 등반 내용이 담긴 에세이가 출간됐다. 책에는 2013년 제51회 부산대학교문물학소설부문 당선자 이경지(부산대 산악부 OB)씨가 담은 대원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이 직접 쓴 등반일지로 꾸며졌다.

지난 7월 중국 사천성 거니에신산(6204m) 등반에 도전한 원정대원들이 도전정신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내용이 담긴 책은 총 6개의 단락으로 짜여진 각 단락마다 대원 2명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풀어간다.

이경지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젊음이니 청춘이니 하는 말들은 너무 오염돼 단어 사용이



지난 7월 중국 거니에신산(6204m) 등정에 나선 영·호남합동원정대 대원들.

을 만나 느끼는 어색함부터 등반 준비과정, 산 중생활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처음 접하는 미지의 산에 대한 막연함과 정상을 앞에 두고도 철수할 수 밖에 없는 막막함 등 대원 저마다 느끼는 원정에 대한, 산에 대한 감정들이 책 속에 녹아있다.

이경지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젊음이니 청춘이니 하는 말들은 너무 오염돼 단어 사용이

주저될 정도”라며 “대학생들로 구성된 원정대에기에 상투적인 표현을 피하고 진솔한 마음과 열정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산악연맹의 영호남합동원정은 지난 1992년 광주일보 후원으로 이뤄진 광주학생산악연맹과 대구학생산악연맹의 '포베다·칸텅그리 텐산원정대' 이후 24년 만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스님 재추대

대한불교조계종 제4대 종정(宗正)에 현 종정 진제(眞際·82) 스님이 재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정추대회의에서 진제 스님이 참석자 25명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고 밝혔다. 종현에 따르면 종정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4대 임기는 2017년 3월26일부터 시작된다.

조계종 종정은 불교 종단의 정신적 최고 지도자이다. 종단 행정에 관여하지 않으나 각종 행사에서 법어를 내리며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의 권한을 가진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진제 스님은 1953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1958년 구족계를 받았다. 1971년 해운정사를 창건했으며 2004년에는 조계종 대종사에 뽑혔다. 지난 2011년 12월14일에는 만장일치로 13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석영 씨월드고속웨리 회장 “불우이웃 써달라” 3000만원

목포복지재단에 기탁

이석영(사진 오른쪽) 씨월드고속웨리(주) 회장은 최근 목포시(시장 박홍률)를 방문해 소외계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목포복지재단에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목포시에 3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3억5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 저소득층가정과 장애인복지시설, 독거노인가정 등 꾸준한 지역사회 환원할

등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6년간 소년소녀가장과 범죄피해자 등을 초청해 무료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고 있으며, 목포지역 최초로 양돈제일교회 경로대학을 운영하면서 24년간 학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이석영 회장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일 때 가장 외롭다”며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곳곳이 헤쳐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지역복지사업 대상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찾아가는 방문상담, 동(洞) 복지협의체, 복지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